

'위드 코로나' 기지가...광주 카드소비 증가율 제주 이어 최대

3분기 5조9000억...3.5% 증가
전남도 1.9% 증가 5조4000억
소비지원금 1452만명 신청
일상회복 소비심리 개선 기대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에 대한 기대감을 얻고 광주지역 소비지표가 눈에 띄게 향상됐다. 광주 3분기 카드 사용액이 전분기보다 3.5% 증가하면서 제주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크게 증가했다. 28일 통계데이터센터가 KCB의 카드데이터 정보

를 분석해 공개한 '3분기(7-9월) 총 카드사용금액'은 전국적으로 196조6000억원으로, 직전인 2분기 192조6000억원에 비해 2.1%(4조원) 증가했다. 광주 총 사용액은 5조9000억원으로, 전분기에 비해 3.5%(2000억원) 증가했다. 이 같은 증가율은 관광도시 제주(4.2%)에 이어 17개 시도 가운데 두 번째로 높았다. 광주에 이어서 인천(2.9%), 서울·경기(각 2.6%), 울산(2.5%), 강원(2.0%) 순으로 높았다. 전남 카드 사용액은 5조4000억원으로, 전분기보다 1.9%(1000억원) 증가했다. 카드 사용액이 전분기보다 늘지 않은 지역은 경북, 세종, 대전 등 3개 시도였다.

올해 1월 광주 1조7000억원·전남 1조6000억원이었던 카드 총 사용액은 지난달 광주 2조원·전남 1조8000억원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동안 1인당 카드 사용액도 광주 150만원→168만원, 전남 126만원→137만원 등으로 증가했다. 지난달의 경우 광주 1인당 카드 사용액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9.5% 증가하며, 증가율이 서울(11.5%), 경기(10.0%)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았다. 전남 증가율은 6.2%로, 제주(2.3%)에 이어 증가율 하위권에 들었다. 10월 들어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로 소비심리가 개선되고, 11월에는 9개 산업 부문에 대한 '소비쿠

폰'이 2300억원 어치가 풀리면서 지역소비도 오름세가 전망된다. 을 2분기보다 카드를 더 쓰면 초과분의 10%를 돌려주는 '상생 소비지원금' (카드 캐시백)은 24일 동안 전국 1452만명이 신청했다. 정부는 지난 1일부터 상생소비지원금 사업 신청을 받았다. 카드 사용액이 늘면서 이달 22일 기준으로 발생한 소비지원금(캐시백)은 총 1465억원에 달한다. 상생소비지원금은 월간 신용·체크카드 사용액이 2분기(4~6월)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많으면 초과분의 10%를 현금성 포인트로 환급해주는 정책이다. 예를 들어 2분기 월평균 사용액이 100만원이고

10월 카드 사용액이 153만원인 경우, 증가액 53만원 중 2분기 월평균 사용액의 3%(3만원)를 제외한 50만원의 10%인 5만원을 돌려준다. 10월분 캐시백 지급 예정액은 지난 15일 총 600억원에서 일주일 만에 2.4배로 늘어났다. 월 단위로 집계하는 만큼 월말로 갈수록 캐시백 지급 규모가 늘어날 수 있다. 10월에 발생한 캐시백은 다음달 15일 지급될 예정이다. 상생소비지원금 시행 기간은 이달부터 두 달이다. 1인당 최대 월 1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카드 캐시백 사업에 총 7000억원의 예산을 배정해놓고 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유통업계, '코세페' 겨냥 주말 '최저가' 할인전

<코리아 세일 페스타>

신세계, 30~31일 '썩데이'
롯데마트, 생필품 반값 판매

가을 들어 소비심리가 풀리면서 대형 유통업계는 이번 주말 '최저가'를 내세운 대대적인 할인전을 펼친다. 국내 최대 소비축제 '코리아 세일 페스타' (11월 1-15일)의 전초전 격이다. 이마트 등 신세계그룹은 연중 최대 할인전인 '썩데이'를 토요일과 일요일 30-31일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마트는 대표적으로 달걀(대란) 한 판 3980원, 오징어 1마리 980원, 샤인머스켓·한우 반값 할인을 내세웠다.

오징어(아르헨티나산)는 기존보다 67% 저렴한 마리당 980원에 선보인다. 샤인머스켓(2.2kg)은 행사카드로 50% 할인하면 1만8950원에 살 수 있다. 한우도 50% 할인을 적용해 등심 1+등급은 100g당 6790원에, 1등급은 5890원에 선보인다. 이마트의 '썩데이' 매출은 첫 행사를 펼친 지난 2019년 71%, 2020년 22.4% 증가율을 나타냈다. 지난해는 단 이틀 만에 1600억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렸다. 삼겹살·목심과 연어회, 초밥 등은 4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며, 조미료·두부·군만두 등 식품류는 하나 사면 하나 더 주는 '1+1' 행사를 마련했다. 행사 첫날에는 사과 4-6개 7980원, 파프리카

880원 등에 살 수 있고, 둘째 날에는 햇갈 3kg을 회원가 5950원에 구매 가능하다. 행사 기간 동안 그린카드로 친환경 제품 30종을 구매하면 에코머니 30%를 추가 적립해주는 '썩데이 그린 장보기' 행사도 진행한다. SSG닷컴에서 녹색제품 등 친환경 제품(200여종)을 1만원 이상 구매하면 5000원 상당 할인권(썩머니)을 선착순 2만명에게 지급한다. 롯데마트는 주말까지 1등급 한우 등심(100g)을 50% 할인가인 5900원에 선보인다. 28일부터 오는 11월3일까지는 '좋은 상품, 놀라운 가격'을 주제로 할인전을 진행한다. 과일과 채소, 축산 등 신선 식품과 가공·일상용품 등 주요 생필품을 반값이나 '1+1' 행사 가격으로 내놓는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롯데백화점 광주점, 플리마켓 수익금 기부 28일 롯데백화점 광주점 직원들이 광주영아 일시보호소를 찾아 성금을 전달하고 있다. 임직원들은 두 달 동안 '버룩시장'을 진행하며 성금을 마련했다. <롯데쇼핑 제공>

광주 유덕동에
하나은행 41번째
국공립 어린이집 개원



하나금융그룹의 41번째 국공립 어린이집이 28일 광주 유덕동에 문을 열었다. 하나금융그룹은 이날 오전 광주시 서구 유덕동에서 '광주 서구 유덕 하나어린이집' 개원식(사진)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는 저출생을 극복하고 일·가정 양립을 돕기 위해 하나금융이 지난 2018년 5월부터 추진한 '100호 어린이집 프로젝트'이다. 1996년에 준공된 이 어린이집은 이번 신축을 통해 보육실 5개, 교구실, 옥상 놀이터 등 다양한 공간이 마련됐다. 연면적 747.60㎡·지상 3층 규모로, 친환경 자재

를 이용하고 모서리 곡선 처리, 손끼임 방지 등 아이들 안전을 감안했다. 정민식 하나은행 호남영업그룹 부행장은 "하나금융그룹 '100호 어린이집 프로젝트'로 양질의

의 국공립보육시설이 늘어나면서 육아 부담이 줄고 일·가정 양립에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전남 중기 매출액 큰 폭 증가

2019년 145조...전년보다 6% ↑

광주·전남 중소기업 매출액이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가 28일 공개한 '2019년 기준 중소기업 기본통계'에 따르면 광주·전남 중소기업 총 매출액은 지난 2019년 144조9421억원으로, 전년 136조6755억원보다 6.0%(8조2646억원) 증가했다. 전남 증가율은 6.6%(72조원→77조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다. 광주(5.5%·65조원→68조원)는 세종(5.9%)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전국 중소기업 매출액은 2663조원에서 2732조원으로, 2.6%(69조원) 증가했다. 광주·전남 매출 증가율은 전국 평균은 물론 수도권 증가율(2.5%)과 비수도권(2.8%) 모두를 웃돌았다. 광주·전남 중소기업은 1년 새 1만5516개 증가했

지만, 전국에서 6.3% 비중을 차지하는 데 그쳤다. 광주·전남 중소기업은 43만7617개(광주 18만1228개·전남 25만6443개)로, 전년보다 4%(1만5516개) 증가했다. 전국 중소기업 수 688만8435개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은 광주 2.6%·전남 3.7%로 나타났다. 전국 중소기업의 51.3%는 수도권에 몰려있다. 중소기업 종사자 수는 광주 44만1771명·전남 56만6662명 등 100만8433명으로, 1년 새 4%(3만4155명) 증가했다. 한 업체당 2.3명이 근무하는 셈이다. 지역에서 여성이 경영하는 중소기업은 광주 7만4034개·전남 10만3162개 등 17만7196개로, 전체의 6.4% 비중을 차지했다. 이들 기업이 지난 2019년 올린 매출액은 29조7932억원으로, 업체당 1억6800만원 꼴이었다. 광주·전남 여성경영인 중소기업의 매출액은 지역 평균(3억3100만원)의 2분의 1 수준이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부동산중개법인 한국토지부동산

강력추천! 투자가치 100% 확신!

다세대빌라

(북구 운암동)

- 대 지 : 364 m²
- 건 물 : 411 m²
- 층 수 : 3층
- 세대수 : 6세대
- 평 형 : 24평형

매매가 : 495,000,000원

상담 010-3733-3933